

명절 음식으로 인한 **질식사고 주의하기**

① 질식(Choking)이란?

- 질식: 음식(음식 조각)이 기도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폐쇄하여 급성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응급상태
- 일반적으로 큰 음식물 덩어리, 삼키는 동안 모양의 변형이 어려운 단단한 식품, 땅콩이나 견과류, 떡, 젤리와 같이 점탄성이 높은 식품이 후두부 입구를 막아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서 발생

② 질식 증상

기침

말하거나
숨쉬기 힘든 증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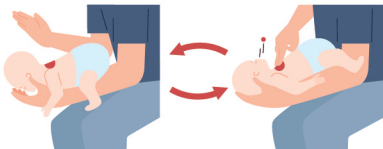
목을 움켜잡는 징후



③ 영아 질식사고 응급처치법

1세 미만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시, '복부밀어내기 방법'을 사용하지 않으며 '가슴 밀어내기 방법'을 시행

- 먼저 구조자의 팔 위에 아이의 얼굴이 아래를 향하도록 올려 떠받칩니다. 이때 아이의 얼굴이 가슴보다 낮은 위치에 있도록 한다.
-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5번 정도 연속해서 두드린다.
- 아이를 앞으로 돌려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바로 아래 가운데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5번 압박한다.
-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이물질이 확인되면 제거한다.
- 환자의 의식이 없어진 경우에는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



두 가지 방법을 이물질이 나올 때 까지 반복하고
이물질이 확인되면 제거함

④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의 질식사고 응급처치법

질식의 징후를 보이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하고,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복부 밀어내기(하임리히법) 5회 시행

- 환자를 세우거나 앉힌 뒤,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고 한 손은 주먹을 칩니다.
- 주먹 친 손 엄지손가락 부분이 환자의 배꼽 위와 명치 끝 가슴뼈 아래쪽 사이의 정중앙에 오도록 합니다.
- 나머지 한 손으로 주먹 친 손을 포개어 감싸 쥐고 환자의 복부를 안쪽으로 누르며, 위쪽으로 빠르게 밀쳐 올립니다. 이때 명치 부위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물질이 제거되어 환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하면 복부 밀쳐 올리기를 중단하고, 자유롭게 호흡을 하는지 지켜봅니다. 시행 중에도 중간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중단해야 합니다.
- 막힌 이물질이 밖으로 나와 의식이 돌아온 뒤에는 장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.



① 등 두드리기



② 복부 밀어내기(하임리히법)